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

페루, 콜롬비아 창립 기념예배 및 손수건 집회 등 미주 선교 소식과 이들의 질병과 우울증을 치료받은 앙헬리카 오쏘리오 성도 간증.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시리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은 후, 죄악과 불법을 버림으로 성결을 이룬 만큼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선교 소식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 은 사집회에 참석해 치료받은 조지아의 셀비오 목사 가족 간증.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축복의 주인공이 된 서민석 집사와 아내의 파킨슨 병이 치료되는 등 응답이 넘치는 몽골 계개수련 집사 간증.

만민뉴스

제887호 2019년 5월 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주 안에서 ‘만민’은 하나입니다!”

페루, 콜롬비아 창립 기념예배 및 북미 지교회 성도 만남



지난 4월 3일부터 18일까지, 이미경 목사(1대대 대대교구장)를 감사로 페루, 콜롬비아, 미국 지교회 방문이 진행되었다.

콜롬비아만민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 및 손수건 집회

4월 7일(일) 오전 11시, 콜롬비아만민교회(담임 장정연 목사)는 창립 7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미국, 멕시코, 온두라스,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칠레 등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참석해 교회 창립의 기쁨을 주 안에서 함께 나누었다.

우리 교회 공언문의 특송에 이어 감사 이미경 목사는 ‘하나’(요 15:5)라는 말씀을 전했다. 콜롬비아 엔라쎬 방송(스페인어권 최대 기독교방송) 로살바 로드리게스 사장이 축사를 전했다.

저녁예배에는 ‘빛의 열매’(엡 5:9~10)라는 말씀을 전한 후, 축하공연(사진 1~3)에 이어 손수건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미경 목사가 담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

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해 주자 시력, 청력이 회복되고 목발이나 지팡이 없이 걷게 되었으며, 갑상선기능저하증, 관절염 등 각종 질병을 치료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8일(월)에는 교회 일꾼을 위한 교육이 1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꾼의 자격’(딤후 2:15)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페루만민교회 창립 13주년 기념예배, 지교회 목회자 만남

4월 14일(일)에는 페루만민교회(담임 김향열 목사) 창립 13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엘살바도르, 미국, 아르헨티나에서 온 성도들을 비롯해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경 목사는 대예배와 저녁예배 시 각각 ‘하나’(요 15:5), ‘빛의 열매’(엡 5:9~10)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저녁예배에는 손수건 집회와 축하공연이 있었다(사진 4~7). 이 목사가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해 줄 때, 우측 마비가 풀

리고 시력이 회복됐으며, 각종 통증이 사라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에 앞서 11일(목)에는 ‘2004 이재록 목사 초청 페루 연합대성회’ 준비위원장 펠리페 우아마니 목사, 부위원장 겸 현재 페루목회자협의회 회장 다니엘 베가 목사 등 지교회 목회자들과의 만남을 가졌다. 저녁에는 일꾼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12일(금), 페루만민교회에서도 이미경 목사는 일꾼 교육을 인도하였고, 13일(토)

에는 아르헨티나 마르틴 알바레스 목사 부부를 만나 사랑과 은혜를 나눴다.

이 밖에도 4월 3일(수)에는 미국 캘리포니아만민선교센터 선교사 및 성도 만남, 16일(화)에는 미국 워싱턴만민교회 성도 및 선교사들과 캐나다 성도 만남을 가졌으며(사진 8), 18일(목)에는 ‘2006 이재록 목사 초청 뉴욕 연합대성회’ 준비위원장 리카르도 레이에스 목사를 만나 향후 선교의 비전을 나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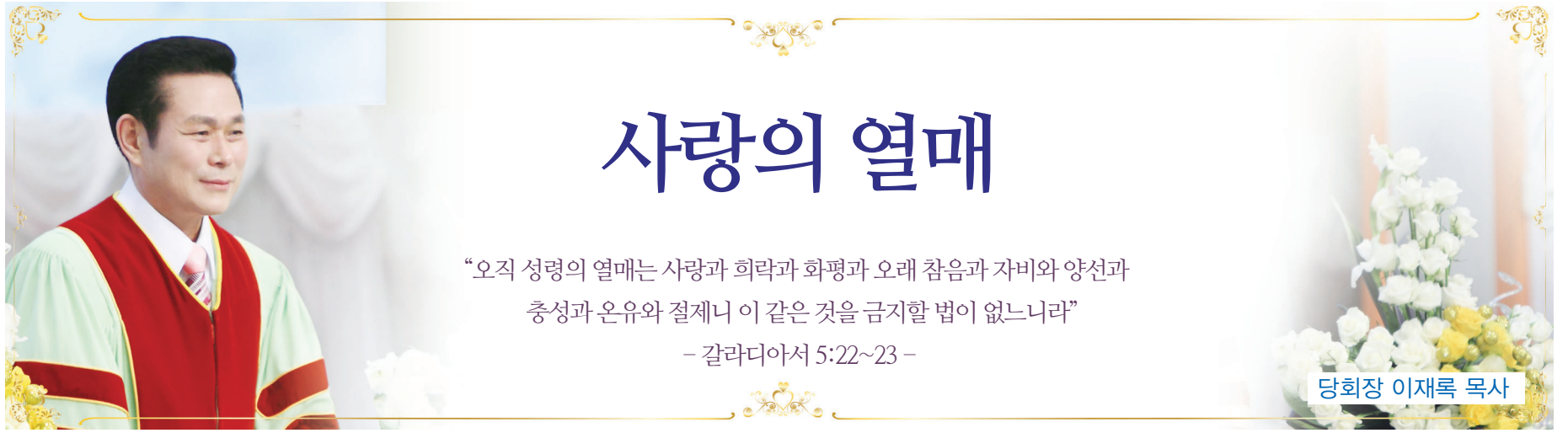
“아들은 선천성 변비를, 저는 우울증을 치료받았어요!”

앙헬리카 오쏘리오 성도 (21세, 콜롬비아만민교회)



생후 15개월 된 아들(세바스티안 켈리 오쏘리오)은 선천적으로 심각한 변비를 안고 태어났습니다. 매번 배변을 볼 때마다 울며 고통스러워했고, 피가 나도록 힘써야 했지요. 다양한 민간요법을 써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4월 7일, 손수건 집회 시 감사 이미경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를 받은 뒤에는 배변하는 데 전혀 어려움 없이 아주 건강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도 수년 동안 고통받았던 우울증을 치료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 갈라디아서 5:22~23 -

당회장 이재록 목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 고린도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척도가 되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진리의 마음으로 변화했는지,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렀는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닮았는지 쉽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첫 번째 열매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랑의 열매는 '최고의 영적인 사랑'

일반적으로 사랑은 육적인 사랑과 영적인 사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며, 언젠가는 변질되는 헛된 사랑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랑은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이지요.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영적인 사랑과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사랑의 열매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랑의 열매는 자신의 생명까지 줄 수 있는 희생이 포함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영적인 사랑보다 차원 높은 최고의 영적인 사랑이지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 생명을 주기까지 상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도 생명을 주는 최고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주신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를 위해 풍요로운 에덴동산을 창설하여 최상의 환경뿐 아니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담은 미움이나 변질되는 육적인 사랑을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받아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귀한지 몰랐지요. 결국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간교한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창 2:17, 3:1~6).

마침내 아담의 마음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육의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더는 풍요로운 에덴동산에 살 수 없어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경작받는 동안(창 3:23)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미움, 시기, 슬픔, 사망 등 사랑과 반대되는 것을 체험하면서 점점 더 영적인 사랑에서 멀어져갑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은 사랑의 열매는 물론, 영적인 사랑조차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표현이 넘쳐난다 해도 육적인 사랑은 세월이 흐르고 상황과 조건이 달라지면 자신의 유익에 따라 쉽게 변합니다. 자신이 받은바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평, 불만하기도 하며 심지어 배신하기도 합니다. 먼저 받아야 주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야 베풀기도 하지요. 내가 준 만큼 받기 원하는 것, 상대가 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것도 육적인 사랑에 속합니다.

2.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는 사랑

사람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누군가를 대신해 자기 목숨을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 주실 만큼 영적인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롬 5:8).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그의 후손인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그 죄값을 대신 담당케 하셨습니다(롬 6:23 ; 갈 3:13 ; 히 9:22).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죄인들을 대신하여 나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핍박하고 모욕할 줄도,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을 줄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요일 4:9~10).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처참한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주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생명을 다한 사

랑, 영원히 변함없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3.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요한일서 4장 7~8절에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깨닫는다면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연단을 받을 때에도, 자신의 모든 소유와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릴 지경에 처할 때에도 마음에 전혀 요동함이 없습니다.

교회 개척 초기, 저는 세 딸을 동시에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금요일아침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교회 지하 사택에 잠들어 있던 어린 딸들이 한 청년과 함께 연탄가스에 중독된 것입니다. 밤새 연탄가스를 마셨기 때문에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였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도, 서운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눈물, 고통, 사망이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서 평안히 살 것을 생각하니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양 떼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그 영혼만은 살려 주시라고 기도했지요. 먼저 청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뒤 막내딸에게 기도하는 중에 청년의 의식이 돌아왔고 둘째에게 기도하니 막내딸이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딸이 일어나고 마지막 막으로 첫째 딸이 정신을 차렸지요. 이후 아무런 후유증 없이 모두 지금까지 건강하며, 세 딸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그 사랑에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생명 다해 충성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뿐입니다. 영혼들을 대할 때에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므로 모든 것을 내어 주면서도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상대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줄 수 있습니다(요일 3:16).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아침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일아침예배 [청년·가나인]	8:00 PM
수요일아침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아침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월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저는 교회 개척 이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참으로 수많은 연단을 받았습니다. 제게 은혜를 입은 사람, 내 가족과 같이 대해 준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했고,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받아 아무 잘못도 없이 손가락질을 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을 선으로 대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사랑과 긍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했지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떠난 사람들이라 해도 어찌하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극심한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저 역시 그러한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4.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 마음에 있는 죄악과 불법을 버림으로 성결을 이룬 만큼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있습니다. 악이 없는 마음에서 참된 사랑이 나오므로 상대를 결코 힘들게 하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며 항상 평안함을 줍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 섬기기에 기쁨을 주고 영혼이 잘되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이룰 수 있지요.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나 사

랑했기에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해도 그들을 멸망에서 건지기 원했습니다(출 32:32).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 역시 생명책의 위협과 유대인들의 훼방과 핍박이 끊임없이 따랐지만 교회와 성도들을 염려할 뿐(고후 11:23~29)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으며(롬 9:3), 순교로써 가장 큰 사랑을 확증해 보였습니다(요 15:13).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믿음의 형제들과 작은 일에도 부딪치고 서로 불편해하며, 함께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마음이 좀 맞지 않으면 감정을 품기도 합니다. 또 영적으로 시들어가고 죽어 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만일 천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지옥에 가야 한다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옥이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알기에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지옥에 갈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떨어질 영혼들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것이지요.

이들은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권능의 역사를 보면서도 진리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망으

로 가는 일꾼이나 양 떼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와 우리 교회를 오해하고 시기하여 핍박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전쟁과 기근과 가난으로 절망 가운데 빠진 불쌍한 영혼들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죽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루하루 진액을 다하기까지 모든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임을 알기 때문이지요. 또한 날마다 ‘어찌하면 더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할까? 어찌하면 더 큰 권능을 베풀어 더 많은 영혼이 믿을 수 있게 할까? 어찌하면 세상이 헛된 줄 알아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다면 하나님과 영혼들을 생명 다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의 결정체인 가장 아름다운 천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랑 자체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신랑 되신 주님과 영원히 사랑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만민’을 전하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우크라이나 선교

조지아

4월 7일(일), 조지아 루스타비 시 그루지나 복음교회(담임 게오르기 흐비차 목사)와 뉴제너레이션 교회(담임 겔라 목사)에서 집회가 있었다. 우리 교회 손영락 장로가 만민의 사역을 간단히 전한 뒤 특송으로 영광 돌렸다. 이어 이스라엘 오렌 램아리 목사(영광의 왕 교회)는 ‘유월절의 영적 의미’에 대해 설교하였다.

오렌 램아리 목사는 2007년부터 3년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따르는 권능으로 복음을 전한 이재록 목사의 선교 사역을 통해 만민과 함께하고 있다.



아르메니아

4월 9일(화), 아르메니아 바나조르 시 골고다 교회(담임 라파엘 그리고리안 총회장)에서 목회자 만남 및 교회 집회가 열렸다. 500여 명의 성도가 참석한 가운데 손 장로(아래 사진 왼쪽)는 성결의 복음에 대해 소개한 뒤 특송하였다.

오렌 램아리 목사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과 성결 된 삶’에 대해 설교하였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이곳에서 만민과 함께 집회를 열어 많은 사람이 은혜받고 치료받아 아르메니아의 부흥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고백했다.



우크라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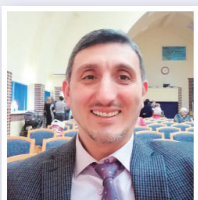
4월 11일(목),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시 하나님의 나라 교회(담임 스타니스라브 총회장)에서 집회가 있었다. 약 300명이 모인 가운데 손 장로는 ‘빛과 소금’에 대해 설교했으며,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

12일(금)에는 목회자들과의 만남 후 하르코프 시에 거주하는 안톤 성도 집을 방문했다. 인터넷을 통해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하며 축복을 받고 있는 가정이다.



13일(토)에는 우크라이나 드네프로 시에서 천국의 문 교회 유리 코노발로프 총회장과 교제를 나누었고, 14일(일)에는 ‘천국의 문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였다.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손 장로는 특송에 이어 ‘빛과 소금’에 대해 말씀을 전했으며, 성도들에게 손수건 기도를 해주었다. 이날 예배는 현지 교회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을 통해 생방송 되었다. 저녁에는 한 성도 가정에 모여 영적인 말씀을 사모하는 일꾼들과 만남을 가졌다.



셀비오 오가네산 목사 (하나님의 백성 복음교회)

“이곳 조지아에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지난 3월, 제 아내(카리나)는 갑자기 얼굴 오른쪽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을 마시면 다 흘렸습니다. 저는 만민중앙 교회의 은사집회 소식을 듣고 한국으로 기도 요청 서신을 보냈습니다.

3월 말, 시차 관계로 인해 녹화된 은사집회 유튜브 영상을 통해 아내는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 후 상태가 급속히 호전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상이 되었지요.

이뿐 아니라 어머니(스베들라나)도 며칠간 위경련으로 드시지도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약 알레르기가 있어 약도 못 드시고 고통 중에 계셨지요. 그런데 기도받은 즉시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을 행하니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서민석 집사 (47세, 3대대 23교구)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서울에 와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님과 멀어졌습니다. 어느 순간 곤고함이 찾아왔는데 누나(서희자 집사)의 인도로 1996년 만민중앙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상선기능항진증을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기도로 깨끗이 치료받은 누나는 주 안에서 성령 충만했지요.

이듬해에는 하계수련회에 참석하여 놀라운 기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지난날을 통회자복 하며 술과 오락을 단번에 끊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00년 결혼 후, 남선교회 기관장을 시작으로 조장, 선교회 회장 등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와 회원들에게 힘이 되기를 소망하여 기도했지요.

저는 2009년 12월에 직원 대부분이 크리스천인 믿음의 기업, ㈜라임금융서비스로 이직해 보험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며 성실로 식물을 삼고자 하니 수입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2018년 후반기, 자기 유익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에 상처를 받아 기도를 쉬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도 떨어지고 직장에서도 실적이 전혀 없는 날도 많아지니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왔지요.

그 무렵, 회사에서 ‘2018-2019 송구영신예배’ 강단헌화를 하게 되었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를 들던 중 제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적 장수’라는 말씀이 뜨겁게 감동으로 와 닿았고, ‘나도 축복받아 하나님 나라에 힘이 되리라’는 비전이 생긴 것입니다.

이후 저는 기도를 쉬지 않고자 결단하고 지방 출장을 가더라도 지교회를 찾아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하거나 모바일 GCN방송을 통해 숙소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선교회 총무와 기관장, 구역장으로서의

사명도 힘써 감당하고 ‘고객은 왕이다’라는 마음으로 고객을 대하며 정도를 견고자 더욱 노력했지요.

이 작은 선행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고객들을 만나게 해 주셨고, 계약이 잘 이뤄지도록 연결해 주셨습니다. 형통함 속에 하나님께서 돕고 계심을 느꼈는데, 곧바로 2019년 1월 입사 9년 만에 최고의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할렐루야! 그 후로도 축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내 안은숙 집사는 오른쪽 가슴에 3.1mm의 결절이 있었는데, 2월 22일 은사집회 때 이수진 목사님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은 뒤 결절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체험도 하였지요.

큰아들(서다현, 고3)은 어릴 때 새끼발가락이 굵아 통증으로 잘 걷지 못했는데 당회장님 기도로 치료됐고, 작은아들(서다민, 초등6)은 키보드를 타다 넘어져 오른쪽 무릎에 부상을 입었는데 만민기도원 이복님 원장님의 기도로 신속히 치료되었지요.

이처럼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천국을 소망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내 안은숙 집사의 초음파 사진



“아내의 파킨슨병이 치료되고 저의 실명됐던 눈이 보입니다!”



게계수련 집사 (64세, 몽골만민교회)

올해 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몸이 피곤하고 배에 복수가 차며 통증도 있어 병원 검사를 받았는데 담낭염이었습니다. 제 신앙을 돌아보며 예배 때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를 믿음으로 받고, 당회장님께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을 얹고 수시로 기도하니 통증을 비롯한 이상 증세들이 차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지요. 1월 중순, 병원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온다라흐)에게도 놀라운 간증이 있습니다. 아내는 2003년에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아 치료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점점 심해져만 갔지요. 급기야는 근육에 마비가 와서 혼자 걷지도 못하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며,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 힘든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러다가 아내를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 정도였지요.

그런데 2017년, 몽골만민교회 손수건 집회 때 기도 받은 뒤부터 갑자기 좋아져서 지금은 혼자서도 잘 걸어 다니고, 직접 요리도 하고 식사도 잘하며, 모든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내는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17세에 왼쪽 눈이 실명돼 우울증을 겪고 술과 도박 등에 빠져 살았는데, 2014년 큰딸을 만나러 한국에 갔다가 만민중앙교회에 다니게 됐습니다.

2015년, 몽골로 돌아온 뒤에는 몽골만민교회에 출석하게 됐지요. 그해 10월, 권능의 손수건으로 담임 받지릭 푸름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았는데, 수술받아야 할 허리가 치료되고 실명된 왼쪽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귀한 제단을 만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침아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 30-6 ☎055)247-8891~2, 010-4167-6580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경남 계룡시 암사면 향한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등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병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447-9217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효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7118-5730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8947-7017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2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3430-331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섭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4115-1127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7397, 010-8927-207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춘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2352-8336